

TV 13일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corresponding channels and broadcast times.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콘 '부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 논란

제작진 “특정 정치 성향과 관련 없다”

여성 비하 표현 ‘김치녀’ 이후 또 시끌

시청자들 “폐지하라” 항의 글 잇따라

KBS 2TV 개콘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콘서트'(이하 '개콘')가 12일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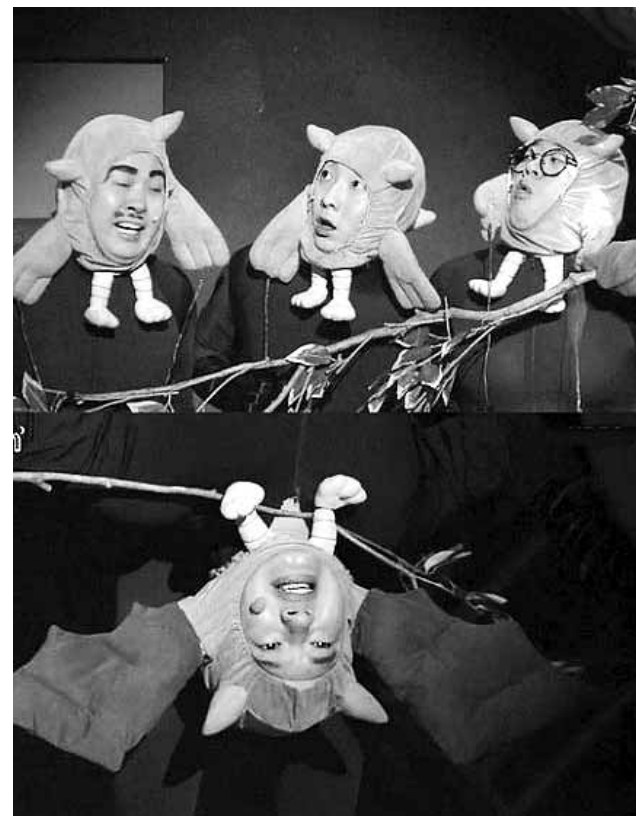
'개콘'은 이날 오후 출연자와 제작진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새 코너 '부영이(사진)'가 부영이 바위를 연상시킨다거나 특정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커뮤니티와 관련 있다는 등의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작진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날 밤 9시부터 방영된 '개콘'의 새 코너 '부영이'에서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장우환 분)이 부영이로 분장한 개그맨 이상구로부터 길 안내를 받던 중 나무뿌리에 떨어지는 모습 등이 등장했다.

이를 두고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코너가 지난 2009년 6월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개콘서트를 폐지하라"는 항의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영이 캐릭터와 함께 등산객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내용이 아무 의미 없이 개그 소재로 쓰였다는 걸 사람들이 믿을 것 같느냐"고 비판했고 다른 누리꾼은 "(제작진이) '부영이'에서 나온 상징적인 의미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견 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콘' 측은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한국 여성



을 비하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 '김치녀'가 코너 '사둥이는 아빠땀'에서 언급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개콘' 측은 "공영방송에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제작진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부터는 인터넷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오현경과 김치 키스 기대~"

'전설의 마녀' 탁월한·손봉금 커플 인기

요즘 상상을 탄 MBC TV 주말극 '전설의 마녀' 인기를 뒷받침하는 기동 중 하나는 바로 손봉금과 탁월한 커플이다.

신화그룹 안주인의 운전기사인 탁월한과 화려한 사기 전과를 자랑하는 손봉금이 공작공작 만들어내는 장단에 빠져 이 드라마를 본다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각각 탁월한과 손봉금을 연기하는 배우 이종원(46)과 오현경(45)을 두고 "이종원과 오현경이 이렇게 연기를 잘 했었느냐"고 묻는 의견도 올라올 정도다.

8일 오후 마포구 삼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이종원·오현경은 화면 밖에서도 여전한 '화학작용'을 자랑했다.

"오현경 씨랑 찍는 장면은 미리 연습을 안 하고 (현장에서) 한 두 번 맞춰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기하다 보니 더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원)

오현경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덕분에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다가와서 연기할 때도 편하다"고 거들었다. 드라마는 저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품은 채 교도소에서 만난 '네 마녀', 문수인(한지혜 분)·심복녀(고두심)·손봉금·서미오(하연수)가 공공의 적인 신화 그룹을 상대로 유쾌한 복수를 내서는 이기가 버림을 받았다.

네 마녀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마법의 뱀지'를 연 가운데 손봉금은 티격태격하던 탁월한과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달콤한 로맨스를 예고하고 있다.

오현경은 "탁월한과 손봉금의 키스신이 있을 것 같은데 컷 갈 키스나 김치 키스를 상상하고 있다"는 이종원의 말에 "잘잘 짤" 시원한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오현경은 극중 김영욱(김수미 분)과도 맞장구치며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오현경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김수미에게 존경심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선배는 깜짝 놀랄 정도로 촬영 준비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이 웃음 포인트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예요. 연세가 높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알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죠." (오현경)

손봉금이 김영욱에게 자주 맞는 부분도 애드립의 달인인 김수미가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는 것이 오현경의 이어진 설명이다.

요즘 방송가에 복고 열풍이 부는 가운데 한때 청춘스타였던 이종원, 오현경에게 다시 되살리고픈 드라마가 있는지 물었다.

오현경은 "요즘 나이가 좀 들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다"면서 "자부 높고 하이킥"을 할 때만 해도 제가 풀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BC TV '마지막 승부'(1994)에서 촬영 중 부상에도 정통견과 역할을 바꿔줬다는 이종원은 "남자들보다 기특 찬 드라마, 힘 있는 운동 드라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웃음지었다.

송일국, 매니저 채용 논란 아내 해명 글 사과

배우 송일국이 본인 매니저 채용 논란과 관련한 아내 정승연

기사 글에 대해 12일 사과했다.

송일국은 이날 소속사 한일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씨는 남편의 과거 매니저 채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글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송일국은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글을 쓴다"면서 "아내가 문제가 된 머리카락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쓴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일국은 이어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일국은 "7년 전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어머니) 김을동 의원의 인턴이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아들로써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아내도 자신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13일(화) 010-9790-8237

EBS

Table showing EBS program schedule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channel.

EBS플러스1

Table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

EBS플러스2

Table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8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60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이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 72년생 목표로 도달하는 형국이다. 84년생 공명여 왔던 바가 공극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2, 51

42년생 술은 끝 때 걸러야 하느니라. 5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66년생 오판의 여자가 총본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78년생 의지만 투철하다면 반드시 극복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06

49년생 유지 하고라면 성과를 거두게 되는 운로이다. 61년생 생 같이 있어야 공조가 이루어지느니라. 73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85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성과는 미미하였다. 행운의 숫자 : 10, 29

43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55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하다. 67년생 착오가 일어나 수도 있는 운수이다. 79년생 마음을 비우고 평정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4, 79

38년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50년생 별 것 아니니 대범하게 넘겨도 될 일이다. 62년생 맹목적이라면 무의미하다. 74년생 단순한 비교는 불만만 더 할 뿐이다. 86년생 확인을 하는 습관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6, 68

44년생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68년생 염려될 만한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80년생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한다. 행운의 숫자 : 24, 34

39년생 해로운 일을 해결하게 될 것이니라. 51년생 일관하는 것이 맞다. 63년생 어긋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75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87년생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22

45년생 빛나는 영광이 따를 것이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5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만 무탈 하리라. 69년생 원만한 관계로 이끌어 가야할 시점에 와 있다. 81년생 좋은 일이 생기기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0, 75

40년생 길조가 솟아나면서 만사여의 하리라. 52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올 것이다. 64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76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37, 47

46년생 먹구름이 하늘 가득히 채워지니 긴장감이 감돈다. 58년생 근년에 대한 일치를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70년생 요령수는 꿈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남이 하나씩 먹었던 따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43

41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니라. 53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65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77년생 핵심을 취해야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8, 14

47년생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59년생 방비를 잘 해야만 무너지지 않으리라. 71년생 잘못 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구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09